연중 제 34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2017년 11월 26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201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해서 경축하고 있죠. 다음 주면, 2018년도 대림 제1주일 전례가 시작됩니다. 뭐 세월이 그냥 정신없이 막 흘러 지나갑니다.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그냥 ‘크레이지(crazy)’합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강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가는 이 세상에 마더 데레사 성녀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 갈 때, 잠시 이 세상의 춥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충분히 사랑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 절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음식 전부를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굶주려서 힘없이 죽기 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 충분하게 사랑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고 ‘나눔’이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고 성취해야만 행복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에 남들보다 빨리 도달해야 합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누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먼저인 거죠. 사랑과 희생보다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핀 한송이 들꽃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거대한 자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난척해도, 며칠 굶겨버리면 배고프다고 난리입니다. 한 백일 굶겨버리면 죽습니다. 코 막고 입 막고 한 십분만 놔두면 죽죠. 깊은 숲 속에 혼자 던져 놓으면 생존하기 힘듭니다.

나 혼자만, 아니면 내 가족끼리만 행복해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행복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미래를 기약하는 행복보다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감사와 행복의 순간을 느끼셔야 합니다.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행복해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행복만 좇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는 자만심과 편견, 고집, 이기심 들이 우리를 행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니까 세상이 살기 점점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내 것이라고 늘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옳다고 우겼던 것들이,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이 하느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당신 자신이나 살려보라고 말입니다. 자기 몸 하나 살려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욕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구세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평생 갈구하던 행복도, 그토록 소중한 것 같았던 내 인생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국가와 정치권력도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번성했고,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면 살기가 빡빡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본전 치기도 못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이 짧은 인생이 허무해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강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작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행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진 그 강도도 뉘우치고 주님을 믿으니까 하늘나라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서 체험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도 없고, 답답하게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맛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느님 나라의 평화와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어려운 인생길 서로 축복해주고,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꿈꿉니다.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 실천하는 사랑과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가족 안에서, 내 이웃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하느님 나라입니다.